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6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간접 고용 방식과 사용자 책임

지문 평가

지극히 평이한 지문이다. '간접 고용'이 왜 사용자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지를 파악하고, '간접 고용'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된 파견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만 차근차근 파악하면 된다. 빠르게 읽고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하자.

키워드

사회 - 법학 - 근로기준법, 간접 고용

사용자, 근로자, 근로기준법,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종속적인 관계, 간접 고용,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2006년의 파견법

문단 1 근로 제공 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의 지위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경영이 확산되면서 근로 제공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고용 방식을 선호한 결과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부당 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 맥락 짚기 이렇게 'A와 달리 B' 형식의 서술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A와 B를 의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서술의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B에 해당하는 내용이 곧 서술의 취지에 해당한다.

A	B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다.

문단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양상**에 따라 판단된다.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고용 계약**이든, 일이 완성되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도급 계약**이든, 근로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근로자'를 판단하는 조건이 된다.

2) **종속적인 관계**란 근로 제공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 관계**를 말한다. **계약을 통해** 이러한 관계의 형성을 근로자가 인정하도록 하면 사용자는 고용 보장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 관계'라면, 종속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 두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종속적인 관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 관계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 ①, ②를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함

☞ 주목 중요한 점은 ①을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①의 충족이 어렵지 않다 [문단1].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새로운 근로 제공의 형태의 경우에는 ①의 충족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문단 3 간접 고용의 방식과 사용자 책임 회피

이런 이유로 **간접 고용**의 방식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맡을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파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는 **사용 사업주**로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맥락 짚기 '간접 고용'을 이해할 때, 예시로 주어진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는 주체이다. 그런데 파견 사업주는 '실제로' 근로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즉 근로자를 지휘 및 감독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휘와 감독을 하는 것은 '사용 사업주'이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근로자와 고용 계약 ○ 종속적인 관계 ×	근로자와 고용 계약 × 종속적인 관계 ○

☞ 주목 따라서 '사용 사업주'는 종속적인 관계를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인정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 문단2-2)의 ①을 충족하지 않음], 즉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단 4 개정된 파견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 회피 해결 방안

1) 간접 고용이 확산되고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장기 사용하는 현상이 늘어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이 지적되자, **2006년에**는 **파견법**이 개정되어 최대 파견 기간인 2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 간접 고용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 '사용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므로 언제나 파견 근로자를 부당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문단1]. 그래서 2006년에 '파견법'이 개정되었었다. '간접 고용'이 2년까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주목 2년 후에는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용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그 시점부터는 ①을 충족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문단1].

2) 이는 근로자 사용이 지속될 경우에 최대 파견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법령을 보완한 것으로, 파견 근로자에게 **사법적 청구권**

을 보장하여 법적 구속력을 제고한 데에 의의가 있다.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파견 근로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맥락 짚기** 기존의 법령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과 '개정된 법령'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점에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 기존의 법령에서는 '최대 파견 기간'이 끝나면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알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에서는 '사법적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 **주목** 이를 통해 이러한 '의무'가 발생해야만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상대방인 파견 근로자가 어떠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파견법	개정된 파견법
최대 파견 기간 만료 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 ↓	최대 파견 기간 만료 후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 ⇒ 의무가 발생하므로, 파견 근로자가 '사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법적 구속력 ↑

3) 이때 직접 고용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이 없는 형태여야 하며, 사용 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이행되는 순간부터[→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 계약은 소멸한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문단 5 개정된 법률의 한계

다만 법률 개정 후에도 사용 사업주의 의무 이행과 파견 근로자의 청구권 행사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최대 파견 기간 만료로 불법적 파견 상태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자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 '개정된 법령'의 한계점이다. 최대 파견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사용 사업주'에게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문단4-1)]. 그런데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사법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는 최대 파견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여전히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가 유지되므로, '고용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직접 고용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 **참고** 이 대목에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직접 고용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 별개라는 점도 읽어 났다면 좋았겠다. 즉 최대 파견 기간인 2년 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 근로자가 '사법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근로자 파견 사업체 X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 갑을 Y의 사업장에 2년간 파견하는 계약을 Y와 체결했다. 파견 계약 이후에 Y는 2010년 2월 15일부터 갑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3년 2월에 ……

❖ **맥락 짚기** 지문의 개념들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보기> 문제다. 근로자 갑, 파견 사업주 X, 사용 사업주 Y를 지문의 설명과 적절하게 대응시키면 된다. 이때 시기에도 유의하자. 2006년 이후의 일이므로, '개정된 파견법'을 적용해서 판단해야만 한다.

➡ 파견 근로자 '갑'은 파견 사업주 'X'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사용 사업주 'Y'를 위해 노동을 제공해 왔다. 즉 종속적인 관계는 'Y'와 형성되어 있었다[문단3].

파견 사업주[→ X]	사용 사업주[→ Y]
근로자 갑과 고용 계약 ○ 갑과 종속적인 관계 ×	근로자 갑과 고용 계약 × 갑과 종속적인 관계 ○

➡ 파견법상 '최대 파견 기간'은 2년이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Y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즉 의무적으로 갑과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문단4-1)].

❖ **주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3년 2월까지 갑을 사용하였다. 즉 그때까지 갑은 '불법적 파견 상태'에 놓여 있었고, 고용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겠다[문단5].

2) …… 향후 1년간 더 업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갑을 1년간 직접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2월에 Y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갑을 퇴사 처리했고, 갑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갑의 퇴사 처리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3년 2월에야 비로소 Y는 갑과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직접 고용 의무가 이행된 것이고, 바로 이 순간부터 기존의 X와 갑의 고용 계약은 소멸하게 된다[문단4-3)]. 그리고 이 순간부터 Y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더 이상 간접 고용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문단3].

∴ 문제는 Y가 직접 고용하는 계약을 1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때의 직접 고용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Y의 퇴사 처리를 '부당 해고'로 본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을 1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지, 최대 파견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곧바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곧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문단5와 같은 한계점도 지적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B형 간염과 HBV

지문 평가

'HBV의 증식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왜 B형 간염이 만성화되기 쉬운지를 파악해야 하는, 비교적 초점이 선명한 글이다. 생리학 지문인 만큼 낯선 개념어들이 다수 등장하지만, 글의 초점만 분명히 하면 충분히 처리하기 쉬운 글이다.

키워드

과학 - 생물 - B형 간염

HBV, 간세포, B형 간염, 캡시드, 외피, DNA, mRNA, pgRNA, 내성, 중합 효소, 세포 사멸, HBx, 트레일 단백질, 사멸 수용체, 사멸 신호, 캐스페이스, 자가 포식, 자가 포식 수용체, 리소좀

문단 1 B형 간염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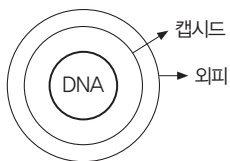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된 **간세포**에 염증이 유발되어 그 기능이 손상되는 질병인 **B형 간염**은, 그 초기에 약물 치료나 인체의 면역 반응이 이어져도 **만성화**되기 쉽다. 그 이유에 답하기 위해서는 HBV의 증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HBV의 증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그로 인한 질병이 '만성화'되기 쉬운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2 HBV의 증식 과정

1) HBV는 단백질 껍질인 **캡시드**와 그(→ 캡시드) 바깥의 **외피**가 **DNA**를 둘러싼 구조를 띤다. 간세포를 만나 침투 직전에는 외피가, 침투 직후에는 캡시드가 벗겨지며, 남은 DNA가 간세포의 핵으로 진입한다.

☞ **맥락 짚기** HBV의 구조가 묘사되었다. 생리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특정 물질의 구조가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원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주목** HBV가 간세포의 핵에 진입할 때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순차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자.

외피+캡시드+DNA ⇨ (침투 직전) 캡시드+DNA ⇨ (침투 직후) DNA ⇨ DNA가 간세포의 핵으로 진입

2) [핵에서] DNA는 고리 모양을 띤 **cccDNA**로 전환되며, 이를 토대로 작은 유전체인 mRNA와 pgRNA가 **주기적으로** 생성되어 핵을 빠져 나온다. **mRNA**로부터는 캡시드와 외피를 비롯한 여러 단백질이, **pgRNA**로부터는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며,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HBV가 생성된다.

☞ **맥락 짚기** 과정이 주어졌으므로, 각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이해하자. 즉 간세포의 핵에 들어간 HBV의 DNA는 mRNA, pgRNA를 생성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HBV'의 생성에 기여한다.

DNA가 cccDNA로 전환 ⇨ mRNA, pgRNA 주기적으로 생성
mRNA ⇨ 캡시드, 외피, 기타 단백질
+
pgRNA ⇨ DNA
= 새로운 HBV

☞ **주목** '새로운 HBV의 생성'은 곧 HBV의 증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문단]. 따라서 글의 초점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mRNA와 pgRNA가 '주기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계속해서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단 3 HBV의 약물 내성

1) B형 간염이 만성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HBV가 약물에 저항하는 성질인 **내성**을 쉽게 획득하는 데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약물이 mRNA로부터 만들어지는 **중합 효소**에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합 효소**는 pg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는 데에 기여하는 단백질이다.

☞ **주목** 계속해서 글의 초점과 직결되는, B형 간염이 '만성화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문단].

☞ mRNA가 만드는 단백질 중에는 pgRNA의 작용을 돕는 '중합 효소'도 있는데, B형 간염의 치료 약물은 중합 효소와 결합하여 그 작용을 방해한다. 즉 pgRNA로부터 '새로운 HBV의 DNA'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다[문단2-2].

• 약물에 의한 HBV의 생성 억제
mRNA ⇨ 중합 효소 ← 약물 결합
↓
pgRNA ⇨ DNA
= 새로운 HBV 생성 ×

2) 그런데 HBV는 동일한 약물이 계속 투여될 때 해당 약물과 결합하지 않는 **돌연변이 중합 효소**를 만든다.

☞ **주목** '돌연변이 중합 효소'가 만들어진다면, pgRNA로부터 '새로운 HBV의 DNA'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HBV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거치더라도, 만성화되기 쉬운 것이다 [문단].

• '돌연변이 중합 효소'로 인한 HBV의 생성
mRNA ⇨ 돌연변이 중합 효소[→ 약물과 결합 ×]
↓
pgRNA ⇨ DNA
= 새로운 HBV 생성 ○

문단 4 세포 사멸

1) HBV에 감염된 간세포에서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면역 반응인 '**세포 사멸**'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HBV가 함께 제거된다.

☞ '세포 사멸'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HBV에 감염된 간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에 해당한다. HBV의 증식은 '감염된 간세포'에

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세포가 사멸하면 HBV의 증식도 억제되기 때문이다 [문단2-2].

▶ 참고 글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런 독해까지도 가능하다. 문단3-2)에서는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이 만성화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문단4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에 대해 설명하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이 만성화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문단에서 '약물 치료, 인체의 면역 반응'이 함께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세포 사멸은 mRNA로부터 만들어지는 다기능 단백질의 하나인 **HBx**의 농도 증가에 의해 촉발된다.

▶ 한마디로 HBV에 감염된 간세포는 그 mRNA에서 HBx라는 단백질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문단2-2], 어떤 세포의 HBx 농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세포가 HBV에 감염되었다는 뜻이 된다. 즉 우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HBx의 농도를 통해 '세포 사멸'이 필요한 대상을 식별하게 된다.

3) 면역 세포가 HBx의 농도 증가를 인식하면 사멸 물질인 **트레일 단백질**이 방출되어 간세포의 **사멸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 결합에 따라 나타나는 **사멸 신호**에 의해 간세포 내부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인 **캐스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 맥락 짚기 '세포 사멸'의 과정이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각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 HBV 감염 세포의 사멸
감염된 간세포의 HBx 농도 ↑ ⇒ '면역 세포'가 트레일 단백질 방출 ⇒ 트레일 단백질 + 사멸 수용체 ⇒ 사멸 신호 발생 ⇒ 감염된 간세포 내부에서 '캐스페이스' 활성화 ⇒ 감염된 간세포 분해

문단 5 HBV의 세포 사멸 방해

1) 그런데 HBV는 진화 과정에서 세포 사멸을 방해하는 작용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B형 간염이 만성화되기 더 쉬워졌다. 세포 사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HBx가 스스로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게 된 것이다.

▶ 인체의 면역 반응에도 불구하고 만성화되기 쉬운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세포 사멸의 원인이 되는 HBx가[문단4-3], 오히려 '세포 사멸'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 HBx는 '자가 포식'과 유사한 반응을 유발한다. **자가 포식**이란 세포의 손상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면역 반응으로, 대개 세포 내의 **자가 포식 수용체**가 세포의 손상 부위와 결합하여 세포 소기관인 **리소좀**으로 이동시키고 리소좀은 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자가 포식'은 세포의 손상 부위만을 제거하는 반응이다. 즉 이는 세포 전체를 제거하는 '세포 사멸'과는 구분되는 작용이다.

3) 문제는 HBx가 손상되지 않은 **사멸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를 리소좀으로 이동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로 인해 트레일 단백질이 방출되어도 캐스페이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 HBx는 감염된 간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원래대로라면 이를 감지한 '면역 세포'가 방출한 트레일 단백질이 감염된 간세포의 '사멸 수용체'와 결합해야 한다[문단4-3]. 그로 인해 '세포 사멸'이 촉발되는 것이다.

▶▶ 주목 그런데 HBx는 멸종한 사멸 수용체에 대해 일종의 '자가 포식'을 수행한다. HBx가 자가 포식에 의해 '사멸 수용체'를 제거하게 되면, 감염된 간세포의 HBx의 농도 증가를 감지한 면역 세포가 트레일 단백질을 방출하더라도, 그것이 결합할 '사멸 수용체'가 없어서 감염된 간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어진다.

• HBx에 의해 '사멸 수용체'가 제거된 간세포
감염된 간세포의 HBx 농도 ↑ ⇒ '면역 세포'가 트레일 단백질 방출 ⇒ 트레일 단백질과 결합할 사멸 수용체 × ⇒ 사멸 신호 발생 × ⇒ 감염된 간세포 내부에서 '캐스페이스' 활성화 × ⇒ 감염된 간세포 분해 ×

4)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B형 간염 치료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 무난한 마무리다.

<보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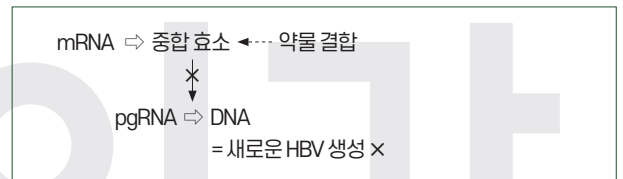
<보기> 문단

1) 다음은 B형 간염의 초기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이다.

▶▶ 맥락 짚기 약물 치료에 초기에 이루어지더라도 B형 간염은 만성화되기 쉽다는 내용을 떠올리자[문단1]. 각 약물의 작용을 'HBV가 내성을 획득하는 이유'와 연결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 아데포비르 : HBV의 **mRNA**로부터 만들어지는 **중합 효소**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함.

▶ (가)는 새로운 HBV의 생성에 필요한 중합 효소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약물이다[문단3-1].



▶▶ 주목 단 HBV는 해당 약물이 반복적으로 투여되면 내성을 얻어, 그것과 결합하지 않는 '돌연변이 중합 효소'를 만들게 된다[문단3-2].

3) (나) 둘라네르민 : 감염된 세포 표면의 **사멸 수용체**에 결합하여 사멸 신호의 발생을 유도함.

▶ (나)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활용하는 약물이다[문단4-3]. 면역 세포에 의해 '트레일 단백질'이 방출되지 않더라도, 직접 사멸 수용체와 결합하여 '사멸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나) + 사멸 수용체 ⇒ 사멸 신호 발생 ⇒ 감염된 간세포 내부에서 '캐스페이스' 활성화 ⇒ 감염된 간세포 분해

▶ 다만 HBx가 선제적으로 '자가 포식'과 유사한 반응을 통해 사멸 수용체를 제거한다면[문단5-2, 3], 사멸 신호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나)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HBV에 감염된 간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HBV 증식을 억제한다. HBV에 감염된 간세포를 제거하면, 그로 인해 새로운 HBV가 생성되지 못한다. 다만 (가) 역시 간세포에서 새로운 HBV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와 달리' 라고 기술하고 있는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 (다) 3-메틸아데닌 : **사멸 수용체**와 이를 리소좀으로 이동시키는 물질 사이의 결합을 저해함.

▶ 어떤 물질과 결합하여, 이를 리소좀으로 이동시켜서 제거하는 작용은 '자가 포식'에 해당한다[문단5-2]. 따라서 (다)는 HBx가 자가 포식과 유사한 반응을 통해 '사멸 수용체'를 제거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 즉 (다)는 HBx의 방해를 억제함으로써, '인체의 면역 반응'에 의해 감염된 간세포가 '세포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가상 현실과 그 실재성에 관한 논쟁

지문 평가

전체적 흐름은 비교적 평이하다. 다만 정보의 추상도와 밀도가 높은 대목이 일부 존재하는데, (가)의 문단3과 (나)의 문단4가 그러하다. 두 대목만 이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 냈다면, 선지 판별도 비교적 수월했을 것이다.

키워드

(가) 인문 - 철학 - 보스트롬

가상 현실, 실제 세계, 현존감, 보스트롬,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비판하는 이들, 의식

(나) 인문 - 철학 - 허구주의자, 차머스

허구주의, 환상, 차머스, 실재, 존재 방식, 인과 관계, 속성

(가) 문단 1 가상 현실

- 1) **가상 현실**은 사용자가 **실제 세계**처럼 느끼도록 **현존감**을 주는 몰입형 가상 환경에서의 현실을 말한다. 그 현존감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에 관심을 둔 철학자들이 **인간 존재**에 관한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현존감이 강화되면 '가상 현실'을 더욱 '실제 세계'처럼 느끼게 되므로, 가상 현실과 실제 세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지만, 현존감이 강화됨에 따라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 2) 그중 **보스트롬**은 확률적 측면에서 지금의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보스트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실제 세계가 아닌, 가상 현실의 존재자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세계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가상 현실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관건이다.

(가) 문단 2 보스트롬의 주장

- 1) 보스트롬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근거로 지금이 **포스트휴먼 시대**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과 닮았지만 개조에 의해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획득한 **트랜스휴먼**에서 더 나아가 그 능력 향상이 누적된 결과로 현재의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자를 **포스트휴먼**이라 한다.

▶ 보스트롬의 주장은 '포스트휴먼'을 전제로 한다.

※ 주목 중요한 점은,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점이다. '트랜스휴먼'은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은 더 이상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2) 그에 따르면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술력으로는 **인류의 역사**와 같은 규모의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 그래서 소수의 포스트휴먼만이 가상 현실을 계속해서 만든다고 해도 **무수히 많은** 가

상 현실이 만들어질 것이다.

▶ '포스트휴먼'이라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가상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가상 현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 3) 지금까지 실제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집합을 P, 모든 가상 현실 속에 살아가는 가상의 사람들의 집합을 P*라고 해 보자. 집합 X에 속한 사람들의 수를 n(X)와 같이 표현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 현실일 확률**은 'n(P*)/[n(P)+n(P*)]'와 같다. 보스트롬에 따르면 가상 현실마다 몇십억의 존재자가 있고, 그러한 가상 현실이 무수히 많을 것이므로 이 확률은 거의 1에 가깝다.

▶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의 수[→ n(P)]는 한정적이다. 그런데 포스트휴먼에 의해서는 무수히 많은 가상 현실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문단2-2], 가상 현실 속의 사람들의 수[→ n(P*)]는 무한히 많아질 수 있다.

◀ 맥락 짚기 구체적인 수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n(P*)이 n(P)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 현실일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

$$\frac{n(P^*) \uparrow}{n(P) + n(P^*) \uparrow} \approx 1$$

(가) 문단 3 보스트롬의 주장에 대한 비판

- 1) 이러한 견해에 **비판하는 이들**은 인류와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춘 존재자들이 가상 현실 속에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구분된다고 지적한다.

◀ 맥락 짚기 '보스트롬'의 주장을 비판하는 관점이 주어졌다. 보스트롬의 관점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즉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자.

▶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가 인간만큼의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더라도, 이들은 '의식'을 가진 존재자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자들'이므로, 보스트롬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가상 현실에 속한 존재자일 수 없다는 것이다.

- 2) 또한 대규모 가상 현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인류가 여러 이유로 멸망할 확률이 더 높으며, ……

▶ 보스트롬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P*)이 무한히 커야 하고[문단2-3],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 '포스트휴먼 시대'여야만 한다[문단2-2]. 그런데 인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멸망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 주목 '인류의 멸망'에 대한 설명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우므로, 잘 읽어 봐야 한다. 보스트롬이 주장하는 바는, '실제 세계'의 인류의 역사는 이미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자의 시대]에 도달하였고, 우리의 현재 인류의 역사는 '가상 현실'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실제 세계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 3) …… 설령 그러한 기술력을 지닌다고 해도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진행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 설령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달하더라도, 그렇게 무수히 많은 가상 현실들을 만들 확률은 희박하다는[→ n(P*)을 무한히 큰 값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가) 문단 4 보스트롬의 반론

- 1) 보스트롬은 **의식**이란 특정한 기능이 구현된 것이며, 그 기능이 어떠한 기반에 의해 구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아니라, 반도체 기반의 기계가 가상으로 구현한, 그 기능을 하는 존재자에게도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보스트롬의 반박이다. '비판하는 이들'에 따르면,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들'은 '실제 세계 속의 존재자들'과 '의식'의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문단3-1]. 즉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므로,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일 리가 없다는 얘기다.

※ 주목 그런데 보스트롬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세계의 의식'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것도 '의식'이므로,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 역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이들	보스트롬
1)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 2) 우리는 '의식'을 갖는다. 3) 따라서 우리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일 수는 없다.	1) '의식'은 일종의 기능이므로,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2) 우리는 '의식'을 갖는다. 3) 따라서 우리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일 수도 있다.

2) 그는 지금의 인류가 가상 현실 속 존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것이 실제 세계이든 가상 현실이든 그 역사를 보건대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비판하는 이들'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류는 멸망할 확률이 높으므로, 실제 세계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달하여 '가상 현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문단3-2].

➡ 그런데 보스트롬은 인류는 충분히 합리적이므로, 스스로 멸망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즉 실제 세계에서도 충분히 인류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또한 기술력이 있다면 자신이 지닌 것과 같은 의식을 재현할 만큼의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이미 반복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비판하는 이들'은 설령 인류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무사히 도달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가상 현실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보스트롬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나) 문단 1 가상 현실의 실재성

1) 허구주의에 따르면 가상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뿐 아니라 보스트롬조차 가상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는 과연 우리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들'인지에 대한 보스트롬의 관점을 주로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가상 현실'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 보스트롬을 포함한 '허구주의'에 따르면, 가상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다. 즉 '보스트롬'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들'인 우리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2) 반면 차머스에 따르면 가상 현실은 물리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과의 지배를 받는, 실제하는 세계이다. 다만 가상 현실의 대상은 물리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다.

➡ 반면 '차머스'는 가상 현실도 '실재하는 세계'라고 주장한다.

※ 주목 이때 차머스는 '실재하는 세계'의 기준으로 '인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물리적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과의 지배를 받기만 하면 '실재하는 세계'인 것이다.

물리 세계	가상 현실
인과의 지배를 받으므로 실재함 물리적 방식으로 존재함	인과의 지배를 받으므로 실재함 다른 방식으로 존재함

(나) 문단 2 차머스의 주장

1) 실제 세계의 대상이 물리적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가상 현실의 대상은 데이터 구조의 기본 단위인 비트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 '존재 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세계의 대상'이 물리적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가상 현실의 대상'은 '비트'로 이루어졌다.

실제 세계의 대상	가상 현실의 대상
원자로 이루어짐	비트로 이루어짐

2) 차머스는 이렇게 그 존재 방식이 다를지라도 가상 현실의 대상은 물리 세계의 대상처럼 우리와 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가상 현실 장치인 VR 기기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으며 그 움직임이 우리의 지각과 행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비트로 이루어진 가상 현실의 대상도 '인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상 현실도 실재하는 세계라는 것이 '차머스'의 주장이다[문단1-2]. '가상 현실 장치'라는 매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상 현실의 대상들과 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문단 3 허구주의자들의 비판

1) 보스트롬과 같은 허구주의자들은 데이터 구조에 의해 구현된 가상 현실에서도 상호 작용을 하며 경험되는 속성이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 세계에서의 속성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 '허구주의자'도 가상 현실에서 '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것이 '실제 세계에서의 속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가 지닌 빨간색은 실제 세계의 빨간 장미가 지닌 빨간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의 장미를 구현하는 데이터 구조는 비트의 속성만을 지닐 뿐 그 자체로 빨간색을 지니지 않는다.

☞ 맥락 짚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 주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지면, 그것이 앞선 설명의 각 요소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 세계의 대상 : '원자'로 이루어진 실제 세계의 빨간 장미
- 가상 현실의 대상 : '비트'로 이루어진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
- 빨간색 : 실제 세계에서의 속성
- 비트의 속성 : 가상 현실에서의 속성
[→ 실제 세계에서의 속성과는 다름]

➡ 가상 현실의 대상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의 속성도 '비트'의 속성이다. 즉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는 '빨간색'을 속성으로 갖지 않는다.

3) 허구주의자들에 따르면 가상 현실에서는 그저 빨간 장미를 보는 것과 같은 허구의 경험을 줄 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와 상호 작용 하여, 그것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빨간색'을 속성으로 갖지 않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이는 '실제 세계에서의 속성'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는, '허구의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이 '허구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나) 문단 4 차머스의 반론

1) 차머스는 속성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자가 지닌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상 현실에서의 속성도 물리 세계에서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실재한다고 답한다. 물리 세계의 빨간 장미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강게 보이는 특정한 경험을 일으키는 것처럼, VR 기기를 착용하는 조건하에서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는 특정한 데이터 구조에 의해 빨강게 보이는 경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 '차머스'는 '가상 현실의 빨간 장미'가 실제로는 비트의 속성을 갖을 뿐, '빨간색'의 속성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빨강게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속성이 실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상 현실에서의 경험을 허구의 경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차머스에 따르면 가상 현실에서의 빨간색이 비록 물리 세계의 빨간색과는 다른 경험을 주는 속성일지라도 그것은 실재하며, 가상 현실을 통한 경험 역시 실재하는 것이다.

▶ 차머스가 가상 현실과 실제 세계에서의 속성과 그 경험이 온전히 동일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그 속성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가상 현실에서는 그 속성이 '빨간색'이 아님에도, 그 데이터 구조에 의해 '빨간색'이라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이 '빨간색'이라는 경험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가상 현실에서의 속성은 실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허구의 경험'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 문단 5 차머스 주장의 이점

1) 보스트롬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참일 경우 우리의 모든 경험이 가치를 잃고 환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공포 때문이다.

▶ '보스트롬'의 주장대로 우리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라면, 우리는 사실 '환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 보스트롬에 따르면 '가상 현실'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문단1-1].

2) 그러나 만일 차머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보스트롬의 주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우리가 '차머스'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설령 우리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라 하더라도, 가상 현실 역시 실재하는 세계이므로,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사라진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뇌신경 과학자들이 공학자들과 함께 고도로 발전된 **경험 기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험 기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환상**에 불과한 **가상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경험하며 마음껏 누리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단, 경험 기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실제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

◎ 맥락 짚기 '경험 기계'라는 사고 실험을 동원하고 있다. 이 자체는 지문과 무관한 새로운 내용이지만, '가상 현실, 실제 세계'에 대한 설명은 분명 지문과 달아 있다. 따라서 지문의 초점과 연결 지어 각 선지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여기서는 가상 현실이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보스트롬을 비롯한 '허구주의자들'의 관점과 같다[(나)의 문단1-1]. 즉 이 관점에 따르면 가상 현실에서 온갖 행복을 누리더라도, 가상 현실에서의 경험은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과 달리 허구의 경험일 뿐이다.

∴ 반면 '차머스'는 '가상 현실'이 실재하는 세계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상 현실의 대상들이 '실제 세계'에서와 같이 '물리적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았다[(나)의 문단1-2]]. 따라서 ⑥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물리 세계	가상 현실
인과의 지배를 받으므로 실재함 물리적 방식으로 존재함	인과의 지배를 받으므로 실재함 다른 방식으로 존재함

<차머스에 따른 가상 현실의 실재성>

2) 그렇다면 경험 기계에서 누리는 삶은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 현실에서의 삶을 **좋은 삶**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경험 기계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행복을 극대화하는 삶만이 **좋은 삶**이라는 **공리주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실재**해야만 한다.

▶ 이 관점은 '실재하는 삶'이어야만 '좋은 삶'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히 행복을 극대화하는 삶만이 좋은 삶이라는 공리주의의 주장을 비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보스트롬'의 주장대로 우리가 '가상 현실 속의 존재자'라면, 우리의 삶은 '좋은 삶'일 수 없게 된다. 이는 보스트롬의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와도 닿아 있겠다[(나)의 문단5-1].

[18~22] 고전시가

(나) 「관동별곡」

— 정철 —

— 수록 지문 평가

기행 가사의 첫손가락에 꼽히며 후대의 가사들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지문에 수록된 부분은 반대파에게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 은거하고 있던 작가가 진월대와 개심대에서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를 표현한 부분이다.

토막 1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봄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며보고

→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여산(= 중국에 있는 산 이름)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이는구나

→ 여산[→ 여기서는 금강산을 가리킴]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이는구나.

➡ 화자는 지금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라고 감탄하고 있다. 소동파의 시구를 변형하여 인용함으로써 진월대의 탁 트인 조망이 훌륭하다는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소동파는 「제서림벽」이라는 시에서, 여산의 모습이 가는 데마다 다르게 보여서 그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여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했다.

어와 조화옹이 현사도 현사할사

→ 아야, 조물주가 아단스럽기도 아단스럽구나.

➡ 진월대에서 바라보는 금강산 여러 봉우리들에 대한 묘사는 이다음 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금강산의 그 수많은 봉우리들을 다채롭게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조물주가 참 아단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 [진월대에서 바라보는 금강산 여러 봉우리들이] 나는 듯하면서 뛰는 듯도 하고, 서 있는 듯하면서 우뚝 솟아 있는 듯도 하고,

부용(芙蓉, 연꽃)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짓는 듯

→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동명(東溟, 동해 바다)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왔는 듯

→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받치고 있는 듯,

➡ 진월대에서 바라보는 봉우리들의 다양한 모양새가 역동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다.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 산봉우리들을 조망하던 화자의 시선이 특히 망고대와 혈망봉에 쏠린다.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 하늘을 우러러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겁(千萬劫, 아주 길고 오랜 세월)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 아,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 화자가 '망고대'와 '혈망봉'을 예찬하는 것은, 그 변치 않는 우뚝한 모양이 마치 임금에게 직언(直言)을 하려는 지조 있는 충신의 모습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산봉우리의 모습에서 충직과 지조라는 유교적 덕목을 떠올리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토막 2 개심대에서 금강산 만이천봉을 본 감상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역력(歷歷)히 헤여 하니

→ [금강산의] 만이천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할 것이지.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 저[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 금강산 만이천봉에 서린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고 싶다는 말이다. 강원도 관찰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금강산을 유람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나랏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형용도 그지업고 체세(體勢)도 하도 할사

→ [만이천봉이] 생긴 모양도 끝이 없고 자세도 다양하구나.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 천지가 생겨날 때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사

→ 이제 와서 (실제로) 보니 [조물주가 어떤] 뜻을 (=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로구나.

토막 3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산을 내려감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보니 괴 뉘신고

→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 본 이가 그 누구신가?

➡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화자는 비로봉에 올라갈 생각은 않고 밑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뒤를 읽으면 알 수 있다.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놉듯던고

→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더 높았던가?

➡ 비로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의 동산과 태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 또한 더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

노국(魯國) 조본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넙거나 넙은 텃하 어찌하여 적당 말고

→ 넓고도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 '맹자'에 공자가 '노나라의 동산(東山)에 올라 보니 노나라가 작게 여겨졌고, 태산에 올라 보니 천하가 작게 여겨졌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공자가 품었던 호연지기(=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를 보여 주는 말로 해석된다.

어와 더 디워[→ 지위, 자리. 여기서는 정신적 경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 애 저[공자의 그 높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 공자의 경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이다. 화자는 금강산의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며 자신은 공자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인물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가미 고이할까

→ 오르지 못하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랴?

➡ 공자의 경지에는 오를 수 없으니 [태산에 오른 공자와 달리]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적 경지가 공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산하는 행위와 결부하여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23~26] 현대시

(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

작품 평가

유사한 구조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단순 반복은 아니고 그 속에 변수가 있다. 그것까지 볼 수 있다면 작품 전체의 의미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제 1~2연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고 욕을 한다. '나'가 욕을 하는 대상은 만만한 상대들[→ 기름 덩어리 갈비, 설렁탕집 주인]이다. 힘센 상대, 즉 권력이나 역사[→ 왕궁,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도 분개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자신을 웅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 '나는 언론의 자유와 월남 파병 반대의 자유를 이행하지[→ 정치권력 등 거대한 힘의 억압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야경꾼[→ 힘없고 만만한 대상]들만 증오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제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지속된 '나'의 소극적인 삶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아득하게 오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습관으로 정착할 정도의 감정]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과거 6·25 때의 회상]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 정보원에게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는 일은 여자들이나 하는 조그마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 과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지속된 '나'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포로 경찰은 포로들 중에서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로, 포로의 입장에서 동료를 배신하고 감시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다.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는 일은, 포로 경찰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힘센 상대들에게 맞서지는 못하는 화자가 선택한 일이었던 것이다.

제 4연 왜소한 '나'의 모습 인식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늬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 '개의 울음소리'나 '애늬의 투정'에 '진다'는 것은 '나'가 일상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소한 일들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의 울음소리'나 '애늬의 투정'은 일상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름 덩어리 갈비'나 '야경꾼' 등과 같은 대상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포로수용소 시절의 웅졸한 저항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대상들을 향한 분노의 바탕에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이처럼 '나'의 내면이 시대와 정치권력에 대한 분노와 고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는 은행나무잎'과 같이 사소한 것도 '가시밭'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5연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나'의 소시민적 삶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절정 위'는 힘센 자[→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선 것은 웅졸하게만 저항하는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자신의 이러한 웅졸함[→ 소시민적 삶]이 비겁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제 6연 작은 일에만 반항하는 '나'의 웅졸한 삶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 일상에서의 웅졸한 반항이다. 힘센 자[→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에게는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발쟁이, 야경꾼]에게만 분개하는 소시민적인 '나'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 7연 웅졸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가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 '모래'나 '먼지'만큼이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다.